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 결혼식은 일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에서 하고 한국은 여자 집에서 식이이 해해집니다.

그 형식은 마당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합니다. 친한 사람도 친하지 않는 사람도 초대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는 화해를 하고 또, 친한 사람과는 기쁜 일을 서로 나누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식에서는 여자는 녹색 저고리 빨간 치마를 남자는 곤색의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행복을 상징하는 원앙을 중간에 두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면 부부는 여자의 집에서 묵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의 집으로 돌아 갑니다. 여자는 일본의 가마와는 조금 다른 가마를 타고 남자는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와같은 결혼식은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결혼식보다 서양풍의 드레스를 입고 서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식도 전통결혼식 같이 여자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닌 호텔, 결혼식장, 교회, 절등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 물 속, 하늘과 같은 독특한 곳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비용도 남자쪽이 거의 부담했지만 요즘은 여자와 남자가 반쯤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거의 변해버린 것은 결혼식 뿐만아니라 생활 양식 전부가 서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을 알고싶을 때는 박물관 같은 곳으로 가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전통 결혼식도 민속촌, 축제 같은 곳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